

대학생 영어 글쓰기에서의 동료피드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nglish writing using peer editing on university students

손 정 미
한양대학교

Son jeong-mi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영어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동료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밝힌 것이다. 대학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은 글쓰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이 바로 동료피드백을 활용한 글쓰기라 할 것이다. 이는 글쓰기 과정 중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발달단계, 초고작성단계, 수정편집단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오늘날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다양한 매체와 이론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웹기반 수업에서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도구인 전자계시판은 이제 글쓰기 수업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의 하이브리드 교육 이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글쓰기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면대면(face-to-face communication)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 영어글쓰기 수업에 있어 동료피드백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CMC를 적극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육이 대학생 영어 글쓰기에 접목된다면 영어 작문 수업은 학습효과는 극대화되리라 본다.

II. 본론

1. 대학에서의 글쓰기 수업의 문제점

글쓰기 수업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강의 시간이 짧다. 정희모 교수도 지적했듯이 글쓰기 수업은 오랜 숙련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1]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영어 글쓰기 수업은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중심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글쓰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1. 삼육대학교 2013학년도 1학기 글쓰기 수업 수강생들의 글쓰기 조사

설문 문항	그렇다 (명)	아니다 (명)
1) 글 시작하기가 어렵다.	25	13
2) 무엇에 관해 써야 할지 모르겠다.	28	10
3) 글의 첫 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29	9
4) 쓴 글을 쭉 이어나가기, 구성하기가 어렵다.	31	7
5) 글을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26	12
6)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30	8
7) 내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문장을 쓰고 싶다.	33	5
8) 글쓰기의 밑바탕이 될 지식을 쌓아야 한다.	34	4
9) 글의 다양한 요소(문법, 구성 등)를 공부하고 싶다.	31	7
10) 차분하게 정성을 쏟아 글을 쓰고 싶다.	31	7

“글쓰기에 임할 때 무엇이 부담스러운가?”란 질문에 삼육대학교 2013학년도 1학기 글쓰기 수업 수강생들(2개반, 총 38명)은 이렇게 답변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덜기 위한 한 방법이 동료피드백을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이다.

2. 동료피드백과 과정 중심 쓰기

결과 중심 쓰기가 작문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형태 중심의 과거의 접근법이라면, 과정 중심 쓰기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thinking process)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며, 무엇을 쓰느냐(what to write)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how to write)에 더 관심을 갖는다.[2] 이는 교수가 아닌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료피드백은 과정 중심 쓰기를 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교수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달리 동료피드백은 대학생들이 작문 개작 과정에 서로 참여하여 글을 수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료피드백의 효과로는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한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비판적으로 다시 읽고 수정하여 초고보다 더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수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달리 긍정과 부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동료피드백의 효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비동시성이 원활한 CMC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문 능력에 대한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이다. 다양한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에 대한 정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학습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동료의 피드백은 글쓰기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CMC를 활용한 동료 피드백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다.[3]

2.1 동료피드백과 발달단계

발달단계는 흔히 쓰기 선행 단계(prewriting)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와 구성을 하게 되는데 동료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주제의 시의성 문제라든지 구성단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2.2 동료피드백과 초고작성단계

초고작성단계는 보통 쓰기 단계(writing)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순환적 글쓰기를 통해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때의 과정은 순환적이어서 쓰기 선행 단계의 구성이 창조적으로 변용된다. 동료들은 학습자가 쓴 글을 읽고, 글의 장점과 단점을 댓글을 통해 지적해야 한다. 또한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이고, 수정 보완 했으면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2.3 동료피드백과 수정편집단계

수정편집단계는 글쓰기 후행단계(postwrit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동료들은 글쓴이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존재이기에 학습자가 초고 때 쓴 글과 최종 완성된 글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때 동료들은 최종 완성된 글에서 전체 구조라든지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났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잘된 부분과 아쉬운 점을 댓글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수업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효과적인 영어 글쓰기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료피드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웹기반에 구축된 대학에서는 CMC 도구인 전자게시판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글쓰기의 특징인 비동시성을 활용한 것으로서 동료들은 학습자가 쓴 글을 읽고 다양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CMC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글쓰기 교육은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결과 중심 쓰기가 아닌 과정 중심 쓰기를 추구하는 교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동료피드백은 발달단계에서는 주제와 구성단계에 도움을 주며, 초고작성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쓴 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글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수정편집단계에서 동료피드백은 완성된 글을 초고와 비교하여 전체 구조라든지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났는지를 도와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동료피드백이 앞으로 적극 활용되어 학습자의 부담을 덜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창출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본다.

■ 참고 문헌 ■

- [1] 정희모 · 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들녘, p.37, 2005. [2] 송주현, 한국 대학 영어학습자를 위한 과정 중심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 교환 매체로서의 전자게시판 활용에 관한 현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 2004.
- [3] 황성연, 동료의 작문 수준에 따른 피드백 제공 활동이 피드백 제공자의 영어 쓰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011.